

「CES 2022 과정」 결과보고서

1 개요

□ 과정 개요

- (기간) '22. 1. 6.(목), 1. 7.(금), 1. 11.(화)
- (방법) CES 2022 및 디브리핑 세미나 참가

□ 과정 내용

- "LG World Premiere", Leading Innovation 등 전시회 관람
 - 글로벌 선두기업의 최신제품, 기술과 향후 기업의 추진방향 청취
- Trade and Global Competition, Bye-Bye Cash, Consumer Safety Driven by AI 등 강연 관람
 - 해당 분야 최고 전문가들의 토론, 강의를 통해 최첨단 산업트렌드 인지
- CES 전문가 디브리핑 세미나 참관
 - CES 2022에 대한 국내 전문 패널들의 후기 및 의견* 청취
 - * CES 과거와 현재, 헬스케어, 인공지능, 가상현실과 메타버스, 기술관의 융합 등

□ 학습 일정

구분	날짜	주요 내용
디지털 박람회 참관	1. 6.(목)	"LG World Premiere", Leading Innovation 등 전시회 2개 참관
	1. 7.(금)	Trade and Global Competition, Bye-Bye Cash, Consumer Safety Driven by AI 등 강연 3개 참관
디브리핑 참가	1. 11.(화)	팬더믹 이후 미래 라이프, 융합의 대질주, 인공지능, 가상현실과 메타버스 등 분야별 전문가 디브리핑 세미나 참관
학습내용 공유	1. 24.(월)	CES 2022 주요이슈 및 디브리핑 세미나 결과 등 교육내용 기관 내 온메일을 통해 공유

2 학습 내용

- 전시회 : "LG World Premiere" LG Electronic Press Conference
- 주 관 : William(Joo Wan) cho, CEO of LG Electronics

□ 세부 내용

- LG는 COVID19로부터 천천히 회복한 후의 세상에 과거와 비슷한 삶을 추구할 것인지 아니면 좀 더 나은, 변화된 삶을 추구할 것인지에 대해 질문을 던짐
 - "Inovation for better life" 라는 슬로건 아래, LG는 소비자들이 미래에 누릴 수 있는 최첨단의 기술을 선보일 예정
- 집안에서는 공기청정기와 히터를 합친 LG PuriCare, 화면공유(room to room) 기능의 LG OLED 97-inch TV, 헤드셋과 마이크를 내장한 LG Ultra Gear 등 최신 전자기기를 제공하고,
- 밖으로 나가보면, 자동안내기능의 LG CLOI 가이드봇, 도어 투 도어 딜리버리 로봇은 물론, 자율주행이 완전히 도입될 경우 LG OMNI POD 내부에서 사무, 쇼핑, 운동, 영화관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
 - COVID19 후의 삶을 보다 자유롭게 안전하며 효율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첨단 기술을 접속시켜, 개인 개인의 라이프스타일과 취향에 맞는 혁신을 선보일 예정

□ 시사점

- LG는 TV, 게이밍, 디스플레이, 청정기 등 다양한 분야의 최첨단 제품을 시연하고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과 반대로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 환경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,
 - LG 제품 개발, 생산, 사용 및 폐기단계까지 환경친화적으로 설계, 2030년까지 탄소를 2017년 대비 50% 줄이는 등의 노력을 할 예정

- 향후 기업들은 이와 같이 기술발전과 환경보호를 동시에 고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느낌
- 또한, 가정과 외부를 모빌리티로 연결하는 LG ThinkQ 에코시스템을 통해 기술 하나하나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최첨단의 삶을 기대하게 됨
- 안과 밖으로 구분짓지 않고 마치 집에서 모든 내·외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최첨단 제품을 선보임

○ 전시회 : Leading Innovation: All-Electric Technology Powering the future
 ○ 주 관 : Scott Park, CEO of Doosan Bobcat

□ 세부 내용

- 두산그룹의 하나인 DOOSAN BOBCAT은 최신 건설장비, 엔지니어링, 제조 및 마케팅을 분야에서 업계 선도기업으로 미래 혁신을 위해 최신 기술을 선보일 예정
- BOBCAT T7X COMPACT TRACK LOADER는 세계 최초의 전기식 소형 트랙터로 100% 전기로 구동되며 작업방식을 변화시키고 배출가스 제로를 달성, 환경친화적이며 최첨단 기술을 탑재하여 미래친화적인 제품
- DOOSAN BOBCAT은 BOBCAT T7X를 위해 국제우주정거장 건설 참여 등 항공 우주분야에 세계적인 개발업체인 MOOG사와 협업, DOOSAN BOBCAT은 트랙터 고유 기능을 개발하고 전기제어 등의 고성능 모션 제어 등은 MOOG사에서 전담함
- 또한, T7X의 보급 및 정착을 위해, 북미 최고의 렌탈회사인 SUNBELT RENTALS와 파트너십을 구축함

□ 시사점

- 다가오는 미래는 과거의 기술력을 뛰어넘어 혁신적인 시스템 구축 뿐만 아니라 배출가스 제로 등 환경까지 고려한 제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함
- 특히, 건설기계부문, 전자제어부문, 보급 및 활용 부문 등 각 부분별 최고의 노하우를 가진 기업들간의 업무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고 봄

○ 강연 주제 : Trade and Global Competition : What's needed for leadership in tech?
 ○ 발 표 자 : Deena Ghazarian, Robert Hoffman, Ed Brzwtwa 등 5명

□ 세부 내용

-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현재 미국의 첨단 기술 리더쉽(tech leadership)을 추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
- 미국이 이 중요한 기술 리더쉽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과 무역 및 공급망이 이러한 미국의 노력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강의
- 미국*의 주요 경쟁국가인 중국, 러시아 이외에도 아프리카 및 남아메리카와 같은 이머징 국가들 또한 AI, 블록체인, 퀀텀기술 등 최첨단 기술에 대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음
- * emerging tech에 20억 달러의 보조금 지급 등 지원
-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최첨단 기술의 패권을 잡기 위해 많은 국가가 국가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음
- * 중국의 경우 30년 주기의 국가지원 및 100년 지원 계획

□ 시사점

- CES 같은 규모가 큰 대부분의 포럼·행사가 미국의 주도하에 운영·

개최되고 있고, 미국에서 막대한 예산과 정책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전세계의 최첨단 기술, 글로벌 기업, 막대한 돈이 미국에 모인다고 생각됨

- 이런 최첨단 기술이 있으나, 없느냐에 따라 로열티를 받느냐, 지불하느냐가 결정되고 그것은 곧바로 그 나라의 경제와 직결된다고 봄
- 미국, 중국, 러시아, 일본, 이스라엘 등 선진국 이외에도 아프리카, 남아메리카 등의 지원이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AI, 블록체인, 쿼터 기술과 같은 최첨단 기술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이 미비하다고 봄
- 삼성, 엘지와 같은 글로벌 기업 뿐만 아니라 새로이 시작하는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, 규제 완화 등 강력한 지원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

○ 강연 주제 : Bye-Bye Cash: Digital Payments Are Soaring
○ 발표자 : Michael Ellison, Michael Terpin, Neha Wattas, Jason Cooner

□ 세부 내용

- COVID19 팬데믹으로 소비자들이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을 통한 디지털 결제로 전환하게 되었음
- 송금이 완전히 디지털화되면서 새로운 지불 시스템이 등장하게 됨
- 2021년을 상징하는 탑5 트렌드는 다음과 같음
- 1. DIY your purchase : 판매자와 접촉없이 상품구매, COVID가 비대면 기술을 5년 앞당기게 함
- 2. Leave your wallet & Keys at home : 애플의 Wallet안에 온라인 지불기능, 차키, ID 카드, 출입증이 포함되어 있음
- 3. Personalization : 71%가 오프라인 구매 중 기분 나쁜 일을 경험한적이 있음, 2021년은 소비자가 오프라인, 온라인, 모바일 등의 여러 경로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omnichannel(옴니채널)

이 인기를 끌어 개인화가 주를 이룸

- 4. Retail my way :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어떤 제품이든 구매할 수 있게 됨, SNS, 스마트폰, 스마트워치, 모바일 등 다양한 구매방식으로 나만의 쇼핑 문화가 생김
- 5. Payment Alternatives : 비트코인, 애플페이, 삼성페이, 구글페이 다양한 지불방법이 도입됨, 소비자의 62%가 비대면 결재를 선호함

□ 시사점

- COVID19로 오프라인/대면접촉이 현격히 줄어들게됨에 따라 온라인/비대면접촉으로 급격한 전환이 이뤄짐, COVID19후에도 과거 회귀는 어려울 듯
- 비대면 기술이 5년 당겨지고 COVID19 후에도 예전 방식의 대면 접촉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비율이 16%에 그침
- 우리나라도 삼성페이, 카카오페이 등 디지털 지불방식은 도입되어 있으나 애플 Wallet과 같은 Leave your wallet & Keys at home 도입정도는 미국에 비해 늦은 편임
- COVID19 이후에도 개인의 84%는 지속적으로 오프라인/비대면기술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련 기술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생각됨

○ 강연 주제 : Consumer Satefy Driven by AI
○ 발표자 : Pat Baird, Joseph Murphy, Mignon Clyburn

□ 세부 내용

- 인공지능(Artificial Intelligence, AI)은 과거보다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들고 있으며, 발표자들은 자율주행부터 헬스케어까지 다양한 부분에서 AI가 활용되고 있음
- AI로 인해 전세계가 과거보다 더 안전하고 더 건강하게 되어 가고 있으며, AI는 고무적인 기술이고 특히 의료과학쪽에 혁신

- 적진 발전을 이루었으며 인류의 이익을 위한 가장 강력한 도구임
- 특히, 의료과학쪽에서 AI는 의사, 간호사 등 의료인력의 단순노동을 자동화하고, 자율주행쪽은 향후 AI의 역할이 기대됨
 - 현장에서 Chatbots을 이용해서 데이터 입력, 정리, 환자상태를 분류하여 의료인력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고,
 - 현재 자율주행에서 AI는 운전자에게 위험감지를 알리는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면, 조만간 AI가 주변감지, 자율주행차량간의 소통, 차량 결함인지 등으로 보다 안전한 자율주행 환경을 이룰 것으로 봄

□ 시사점

- 최근 식당에서 서빙로봇을 본적이 있는데 직원들이 단순서빙에서 벗어나 고객응대 및 안내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고객 만족도가 향상된 것을 느낌
 - 과거에는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볼만한 것들이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현실에서도 볼 수가 있었음
- 자율주행의 경우 아직까지 완전한 자율주행이 아닌 운전 보조 역할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 'Consumer Safety Driven by AI'을 통해 다양한 산업의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완벽한 자율주행이 가까운 미래에 올 것임
- 의료과학쪽으로는 방대한 진료 및 치료 데이터로 무장한 AI 의사에게 진료·치료받는 날이 조만간 오리라 생각됨

3 시사점 및 학습 소감

□ 시사점

- 코로나로 인해 전세계인의 생활패턴이 대면에서 비대면으로,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, 각각에서 올인원으로 바꾸어 놓음, 각종 통계수치를 보면, 코로나 이후에도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

- 디지털 결제, 애플 Wallet, AI, 블록체인, 퀀텀기술과 같은 최첨단 기술을 여전히 미국, 중국, 일본 등이 독식하고 있기 때문에 제2의 삼성, 엘지와 같은 글로벌 기업을 위해 국가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
- 기업들 또한 기술발전과 환경보호를 동시에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느낌
 - LG, 두산의 전시회를 보면 미래에는 기술(편리, 올인원)에 환경을 고려한 기술(제품)을 선보이고 있음

□ 학습 소감

- CES를 단순히 IT·가전제품만 전시하는 국제전자제품박람회라고 생각했는데 5G, 이동통신, 미래자동차, 인공지능 뿐 아니라 디지털 헬스케어, 푸드테크 등 다양한 최첨단 산업 트렌드를 만날 수 있었고,
 - 삼성, LG, 두산밥캣 등 국내 기업도 많이 참여했지만 아직까지는 회사 최신제품 소개·설명에 국한되어 있음
 - 'Big tech and Banking', 'Weapons of Mass instruction', 'NTF, WTF?!?!', 'Learning in a Virtual World' 등 다양한 강연 주제로 그 분야 최고 권위자들이 강의를 들으며, 최첨단 산업 트렌드를 알 수 있었음
 - 우리나라 기업에서도 최첨단 산업 트렌드를 주제로 한 강연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됨

4 학습 내용 공유

□ 개요

- (일시/운영방식)

- '22. 1. 24.(월) / 기관 내 온메일을 통한 학습내용 공유

○ (공유대상)

- 소속부서(휴대품검역2과) 직원

○ (공유내용)

- CES 2022의 2개 전시회, 3개 강연 및 디브리핑 세미나 교육 결과

수신확인 총 2320건 | 확인된 메일 1569건 | 삭제

제목:받는사람

삭제

받는사람	제목	보낸날짜	발송	확인	취소	발송취소
김영애 (37)	CES 2022 온라인 교육 및 디브리핑 세미나 참석 결과 보고서 공유합니다.	2022-01-24 11:41:48	37	0	0	발송취소

학습내용 공유(1)

「CES 2022 과정」 결과보고서

1 개요

- **과정 개요**
 - (기간) '22. 1. 6(목) ~ 1. 11(화)
 - (장소) CES 2022 및 디브리핑 세미나 참가
- **과정 내용**
 - 'LG World Premiere', Leading Innovation 등 전시회 관람
 - 글로벌 신사업의 최선예용, 기술의 향후, 기업의 존엄발달 향위
 - Trade and Global Competition, Bye-Bye Cash, Consumer Safety Driven by AI 등 강연 관람
 - 해당 분야 최고 전문가들의 토론, 상의를 통해 최첨단 산업트렌드 인지
 - CES 전문가 디브리핑 세미나 참가
 - CES 2022에 대한 국내 현존 캐년들의 후기 및 의견' 청취
 - CES 과거와 현재, 헬스케어, 인공지능, 가상현실과 메타버스, 기술력의 융합 등
- **학습 일정**

구분	날짜	주요 내용
디브리핑	1. 6(목)	'LG World Premiere', Leading Innovation 등 전시회 2개 관람
박람회 관람	1. 7(금)	Trade and Global Competition, Bye-Bye Cash, Consumer Safety Driven by AI 등 강연 3개 관람
디브리핑 참가	1. 11(화)	편의점 이후 미래 라이프, 생활의 대물줄, 인공지능, 가상현실과 메타버스 등 융합형 콘텐츠 디브리핑 세미나 수강

2 학습 내용

- 전시회 : "LG World Premiere" LG Electronic Press Conference
- 주 관 : William(Joo Wan) cho, CEO of LG Electronics
- **세부 내용**
 - LG는 COVID19로부터 원인의 회복한 후의 세상에 과거와 비슷한 삶을 추구할 것인지 아니면 좀 더 나은, 변화된 삶을 추구할 것인지에 대해 질문을 던짐
 - "Innovation for better life" 라는 슬로건 아래, LG는 소비자들이 미래에 누릴 수 있는 최첨단의 기술을 선보일 예정
 - 위안에서는 공기청정기의 리더를 향한 LG PureCare, 화면공유(room to room) 기능이 LG OLED 55-inch TV, 헤드셋과 마이크를 내장한 LG Ultra Gear 등 최신 전자기기를 선보이고...
 - 앞으로 나가보면, 자율주행기술의 LG CLOE 카이도봇, 도어 두 도어 멀티비전, 로봇은 물론, 자율주행이 원인이 되었을 경우 LG OMNI UXE 내로에서 시동, 소빙, 운송, 열화단원이 가능한 것으로 보임
 - COVID19 후의 삶을 보다 자유롭게 안전하며 효율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첨단 기술을 집중시켜, 개인 개인의 라이프스타일과 취향에 맞는 혁신을 선보일 예정
- **시사점**
 - LG는 TV, 웨어러블, 디스플레이, 영상기 등 다양한 분야의 최첨단 제품을 시연하고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과 반대로 가장 소중해져가려운 환경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,

학습내용 공유(2)